

자동차 이름, 앳! 그런 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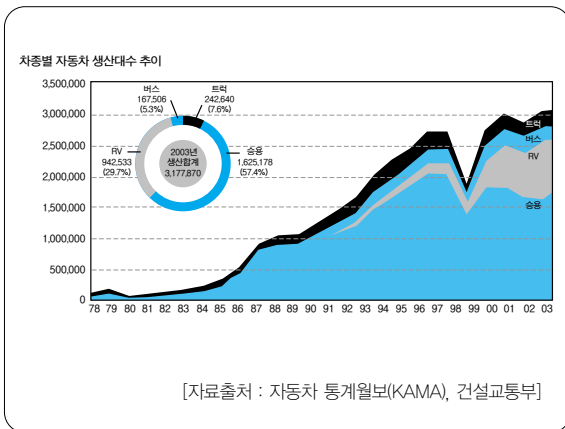


상표조사분석팀
최혜란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에 이어 자동차 생산순위 세계 6위를 차지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230만대 수출이라는 전례 없던 실적을 올려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는 1955년 최무성씨가 미군으로부터 얻게 된 지프 엔진과 변속기, 차축 등과 드럼통 등을 펴서 만든 승용차 '시발'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수출은 물론 내수판매도 활성화되어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주목하는 아시아의 대표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면 2003년 한해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상용을 포함하여 3,177천대이다. 신차 수출 역시 천오백만구천대(2002년)로 세계 7위를 차지한다.



국내 승용차 보유대수는 이미 천만대를 돌파하여 2003년 10,278천대, 인구 천 명당 보유율로 환산하면 214.5대, 1대당 인구는 4.7명이다.

흔히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임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해에도 수 종류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며 생활의 주요 아이템이 된 자동차. 이 글에서는 자동차 브랜드, 구체적으로 차 이름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자동차 이름의 숨겨진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듣는 자동차의 이름 속에는 깊은 뜻이 자리 잡고 있다. 메이커의 모델을 분류하는 모델명에서부터 배기량을 나타내는 숫자 이름을 갖고 있는 차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름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메이커의 희망사항이나 차의 개발 컨셉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까지.

이와 같이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차의 이름을 알아본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차가 어떤 컨셉으로 개발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 차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50~60년대 자동차 산업 태동기에는 자동차 이름이 지금 같이 이국적인 것보다는 ‘시발’, ‘새나라’ 등의 한글 이름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 이름에 포니, 프라이드, 캐피탈 등의 영문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만 해도 차 이름에 담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로는 주로 합성어가 사용되기 시

작해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타고 있는 차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시절 사용되던 대표적인 차 이름은 스포프(Sporty+Coupe)와 스포티지(Sports+Portage) 등으로 그 이름을 분리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지만 분리하기 전에는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 비한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을 파악하기가 쉬운 편이었다.



현재 사용되는 차 이름은 라틴어와 스페인어가 대부분으로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생소함이 있지만 차의 제작 컨셉을 담고 있거나 부르기가 쉬워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차의 이름은 단순히 뜻만 좋다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부르기가 쉬워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달에 공개한 중형 세단 ‘로체’는 이름을 정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름 짓는데 쓴 비용만도 1억 원이 넘는다. 통상 자동차 이름을 하나 정하는데 1,000~1,500개 정도의 후보군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자동차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때문에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동차 스타일과 외관 못지않게 작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해마다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감안할 때 자동차 작명을 비롯해 홍보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차를 잘 만들어놓고도 이름이 별로여서 브랜드 마케팅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국내상표팀 정선교 차장은 “차 이름 하나를 소비자에게 기억시키는 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마케팅 비용이 든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다.

최근에는 예전 베스트셀러 브랜드를 다시 살려 쓰는 복고 마케팅도 인기인데, 앞서의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경우 기존 인지도를 활용해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1600여 개와 해외 75개의 이름을, GM 대우자동차는 국내 600여 개와 해외 1000여 개 이름을 각각 상표로 등록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60여개의 이름을 상표등록 했다.

자동차의 이름분류를 크게 보면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 단어(영어 스페인어 등의 단어, 지역)
ex) Mustang, Santa Fe
- 알파벳 조합(차의 성격을 나타낸 두문자)
ex) NSX, GTO
- 숫자의 조합(배기량, 마력을 표시한 숫자)
ex) 325i, LS430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 차를 보면서 괜히 반가운 기분이 든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 같은 차종이 국내에서와는 다른 이름을 달고 있어 다소 의아하게 여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출용 차의 경우 현지 실정과 말의 뜻, 소비자 성향에 맞추기 위해 차 이름을 내수용과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출명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해외법인이 현지 실정에 맞게 짓는다. 현지사정에 밝고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속어, 비어, 사용어 등 현지 언어에 대한 정보가 많아 적합한 차명을 지을 수 있어서다. 외부 작명업체에 의뢰하거나 사내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내

1) 동아일보 2005.9.22일자



수명 제작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Atoz로 영어표기해 원래발음과 다른 현대 아토스는 해외에서는 Atos로 써서 차이점과 영어발음을 통일시켰다. 티뷰론은 유럽에서 파워풀하고 강인한 쿠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차의 형태인 쿠페(Coupe)를 그대로 차명으로 쓴다.

스타렉스와 그레이스는 현대를 의미하는 H를 쓴 H1, H100이란 이름으로 현대차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기아의 카스타는 유럽에서 조이스(Joice)로 불린다. 레저·다목적용의 MPV임을 감안, 즐겁고 유쾌하다는 이미지를 붙여넣기 위해서다.

크레도스는 클라루스(Clarus)로 통한다. 대우는 마티즈, 레간자, 누비라 등 기존 이름을 유럽, 미국에서 그대로 쓰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이름은 전혀 다르다. 프린스는 왕자, 라노스는 쪽빛의 푸른 용을 뜻하는 람용, 누비라는 여행가이다.

수출명을 달리하는 이유는 내수명이 현지에서 안 좋은 뜻을 지니거나 은어 혹은 비어일 때가 있어서다. 또 현지에 이미 다른 차의 이름으로 등록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유럽 남미 등지에 많이 수출됐던 대우 벅시아는 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에서 내수 자동차명과 같은 이름으로 팔렸지만 유독 칠레에서는 다른 이름을 써야했다. 그곳에서는 벅시아가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천당'이라는 의미도 있어 이 차를 타면 천당갑니다(?)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 무쏘도 스페인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할 수 없이 코란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됐다.

기아의 카니발은 미국시장에서 세도나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피러스는 연인을 뜻하는 스페인어 아망테를 변형하여 아만티로 바꾸었다.

프랑스 시트로엥이 삭소(Saxo)를 일본에 판매하려다 삭소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저속한 비어로 쓰이고 있어 상용으로 바뀌어야 했던 해외 사례도 있다. Chevrolet의 Chevy Nova 자동차 역시 스페인쪽에 수출하려다 이름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라틴어로는 Nova가 별을 의미하지만 스페인어에서 Nova는 '가지 않는 대'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외래어보다 자국어를 선호하는 나라에서는 차명을 현지어로 바꾸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데 이 지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차종은 중국어로 바뀌 팔린다.

대우 에스페로는 귀족으로, 슈퍼살롱은 초급사용, 즉 초특급 용이다. 중국은 차명에 용(龍)자를 많이 쓰는 것이 특징이다.

선대 모델이 현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판매대수가 많았던 경우 이를 유지, 발전시키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모델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차도 많다. 현대차종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엑센트 후속모델인 베르나가 여전히 엑센트로, 아반떼가 유럽에서 란트라, 미국에서 엘란트라로 불리는 경우이다. 엘란트라라는 이름은 로터스의 스포츠카 엘란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논란 때문에 유럽에서만 엘자를 빼게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갖고 있다.

해외메이커와 제휴관계에 있거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으로 차를 공급할 때 현지 메이커의 차명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기아 프라이드가 해외에서 포드 페스티바로, 아벨라가 포드 아스파이어로 팔릴 게 그 예이다.

자동차 수출이 큰 비중(전체 수출액의 약 25%)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도 수출형의 이름을 내수 모델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 해도 중저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일본차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 이름은 물론 판매 브랜드까지 바꾸기도 했다. 도요다의 렉서스, 혼다의 어큐라, 닛산의 인피니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업체는 내수명은 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조합을 즐겨 쓴다. 반면 고급차의 경우는 숫자와 영문 이니셜을 혼용해 수출차명을 짓기도 한다. 일본 고급차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렉서스의 경우 가장 고급차종은 LS, 중대형은 GS, 중형은 ES, 소형은 IS로 나뉜다. 이 영문 이니셜 뒤에 배기량을 상징하는 400, 300, 200 등이 붙어 모델명이 된다.

그러나 일본 내수용 모델명은 다르다. LS시리즈(LS400/LS430)는 셀시오(Celsoor), GS시리즈(GS300/GS400)는 아리스토(Aristo), ES시리즈(ES300)는 윈덤(Windum), IS시리즈(IS200/IS300)는 알테자(Altteza)로 판매된다. 그 외의 수출형 모델로는 RX시리즈(Harrier/헤리어)300, GX시리즈470, LX시리즈(Land Cruiser Cygnus)470, SC시리즈(Soarer)430 등이 있다. 혼다의 어큐라 디비전이나 닛산의 인피니티도 마찬가지다.

일본차 업체가 이처럼 차명을 달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급 디비전의 경우 영문 이니셜과 숫자를 혼용하면 벤츠 S, E, C 클래스나 BMW 7, 5, 3시리즈처럼 차명을 단순화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시키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고객입장에서는 이름으로 배기량이나 등급을 알 수 있어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밖에 어감이 현지 국가에 알맞지 않거나 겹치는 경우도 수출용과 내수용 모델명이 다른 이유다. 특히 동양권에서 한국과 일본은 차명을 라틴어 계열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따로 짓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출차의 작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혼다 어코드, 도요다 캠리 등 각 메이커를 대표하는 차종은 모델이 바뀌어도 이름을 계승한다. 소비자의 이미지가 워낙 좋은데다 주력 차종의 이름을 바꿀 경우 엄청난 홍보 및 광고비를 다시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차의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명	브랜드의미	생산회사명
아토스 ATOZ	공개적인 응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으로 'A'에서 Z까지 라는 뜻. 현대 자동차 최초의 경승용차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	현대자동차
클릭 CLICK	N세대(Network Generation)를 주 타겟으로 하는 모델로 N세대와 친숙한 이름 부여. 클릭은 '마우스를 누르다' 외에도 '성공하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	현대자동차
베르나 Verna	청춘, 열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소형차의 고급화를 이루겠다는 열정의 의미	현대자동차
아반떼 Avante	전진, 발전, 앞으로의 뜻을 갖고 있는 스페인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브랜드의 숨은 의지를 표명. XD는 Excellent Driving을 뜻함.	현대자동차
쏘나타 Sonata	피아노 독주곡을 의미하는 쏘나타는 고도의 연주기술이 요구되는 강한 개성을 지닌 4악장 형식의 악곡으로 혁신적인 기술, 성능, 가격을 이룩하는 종합예술 '쏘나타'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화로운 승용차임을 뜻함. EF는 Elegance Feeling의 약자로 첨단 기술과 네오 클래식 스타일의 품격디자인 그리고 무결점 지향의 품질로 고객을 위한 승용차를 의미함.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브랜드의 숨은 의지를 표명.	현대자동차
투스카니 Tuscani	이탈리아 중부 서해안 휴양도시의 지명. 고대 로마 문명 이전의 이탈리아 문명 기원지	현대자동차
라비타 Lavita	풍요로운 삶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넓은 실내공간을 의미. 다양한 공간 활용성을 강조한 모델명	현대자동차
그랜저 Grandeur	첨단 메카니즘에 정통 세단의 품위와 조화를 이룬 고급차라는 자부와 긍지를 표현. XG는 Extra Glory라는 최고의 영광을 의미	현대자동차
에쿠스 Equus	개선장군이라는 의미어 라틴어. 멋진 마차, 천마를 의미. 영어로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독창적인 명품 자동차(Excellent, Quality, Unique, Universal, Supreme automotive)를 의미	현대자동차



브랜드명	브랜드의미	생산회사명
스타렉스 Starex	별을 의미하는 star와 왕을 뜻하는 Rex의 합성어로 별중의 별이라는 뜻	현대자동차
산타모 Santamo	safety and talented motor의 영문 안전한 다목적 차를 의미	현대자동차
갤로퍼 Galloper	영어로 '달리는 말'이라는 뜻	현대자동차
산타페 Santafe	미국 뉴멕시코의 유명 휴양지명. 일상에서 벗어난 유식과 레저를 상징	현대자동차
트라제XG Trajet	프랑스어로 여행, 여정의 의미 XG는 Extra Glory	현대자동차
테라칸 Terracan	땅, 대지를 뜻하는 테라(terra)와 왕, 황제를 의미하는 칸(khan)의 합성어로 대지를 지배하는 제왕 또는 SUV의 왕중왕을 상징	현대자동차
비스토 Visto	스페인어, '경쾌함과 빠르게' 20~30대의 젊은층의 스피드감, 활동성, 밝음 등을 뜻함	기아자동차
리오 Rio	스페인어, '강' 포르투갈어로는 1월의 강이라는 의미	기아자동차
스펙트라 Spectra	빛의 근원인 7가지 색상의 집합체와 같이 스타일, 성능, 경제성, 편의성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를 상징	기아자동차
옵티마 Optima	영문 Optimum의 뜻인 최적조건의 복수형. 고품격의 세련된 스타일로 최상의 성공을 확신하는 새로운 승용차라는 뜻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Opirus	라틴어, 보석의 땅, 금의 땅(Ophir Rus)이라는 전설 속의 지명. 영어로는 우리의 여론 주도자(Opinion Leader of us)라는 뜻	기아자동차
엔터프라이즈 Enterprise	진취성, 모험심, 기업가 정신을 뜻하는 영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만든 최고의 고급차라는 의미 내포	기아자동차
카스타 Carstar	영문 Car+star의 합성어	기아자동차
레토나 Retona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뜻의 영문인 Return to Nature의 합성어	기아자동차
카렌스 Carens	Car+Renaissance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부흥기를 열겠다는 의미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Sportage	Sports+Portage의 합성어로 스포츠성과 운반성 2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상징	기아자동차

브랜드명	브랜드의미	생산회사명
카니발 Carnival	행상 축제를 의미하는 영문 자유롭고 낭만적인 레저를 추구하려는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의미	기아자동차
쏘렌토 Sorento	이탈리아 나폴리항 근처의 아름다운 항구 휴양지. 미국 샌디에고 부근 하이테크 단지의 이름. 멋진 스타일과 하이테크 성능을 겸비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	기아자동차
마티즈 Matiz	누앙스, 느낌의 뜻을 지닌 스페인어 빈틈이 없으면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차를 의미	GM 대우 자동차
칼로스 Kalos	아름다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아름답고 우아한 차라는 뜻	GM 대우 자동차
라노스 Lanos	라틴어 Latus(줄거움)과 Nos(우리의) 합성어	GM 대우 자동차
누비라 Nubira	순수 우리말인 누비다에서 따온 순 우리말	GM 대우 자동차
라세티 Lacetti	라틴어 Lacertus에서 따온 말로 힘 있는, 성능 좋은, 젊음이 넘치는 이라는 뜻	GM 대우 자동차
매그너스 Magnus	위대한, 강력한, 품위있는 등의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 성공한 중년을 의미	GM 대우 자동차
레조 Rezzo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안락한 쉼터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M 대우 자동차
체어맨 Chairman	영문으로 의장, 회장을 뜻하는 단어로 이 시대 최고의 차임을 표명하고 이 차를 타는 것만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뜻	쌍용자동차
코란도 Korando	한국인은 할 수 있다(Korean can Do)의 합성어	쌍용자동차
무쏘 Musso	코뿔소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4륜 구동 승용차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경음화한 브랜드 네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Rexton	왕가의 품위를 상징하는 Rex, 상류사회, 최신 유행을 뜻하는 Ton이 합쳐진 합성어	쌍용자동차
SM	Samsung Motors Sedan을 의미하는 SM과 중형과 소형을 의미하는 5와 3의 합성어로 뒤의 두자리는 배기량을 뜻하며 V엔진 형식을 의미	르노삼성 자동차

어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앞으로 어떤 차가 지나가면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쯤 상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